

연중 제 23 주일 (다)

박재광 마티아

19. 9. 8.

시편 90 (89), 3-4. 5-6. 12-13. 14와17 (후렴 1)

후렴. 주님, 당신은 대대로,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.

1.인간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며, 당신은 말씀하시나이다. "사람들아, 돌아가라"
 2.당신이 그들을 쓸어내시니, 그들은 아침에 든 선잠 같고, 사라져 가는 풀과 같사옵니다.
 3.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.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.
 4.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.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.

1.천 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, 한 토막 밤과도 같사옵니다.
 2.아침에 돌아나 푸르렀다가, 저녁에 시들어 말라 버리나이다.
 3.돌아오소서, 주님, 언제까지리이까?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.
 4.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. ||: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.:||
 ||: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실어 주소서.:||